38. 컴퓨터 부품 조립 작업에서 전자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별 남 나이 28세 직종 컴퓨터조립 및 설치작업 작업관련성 낮음

- 1. 개요: 김OO은 2001년 12월 10일 M컴퓨터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건강이 좋지 않아 2002년 7월 31일 퇴사하였다. 퇴사 이후 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.
- 2. 작업환경: 김OO은 본체 안의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, 프로그램 설치 및 A/S 작업을 하였다. 붙임 절차 마지막에서 하드디스크 파티션 작업을 할 때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다. 이 작업은 하루 1-2시간 정도이고 상기 근로자는 하루에 10대 정도의 컴퓨터를 조립한다.
- 3. 의학적 소견: 김OO은 1992년부터 발병 전까지 컴퓨터 관련회사에서 근무하였다. 2002년 7월 31일 퇴사한 후 8월 경 백혈병이 발병하였고, K대학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확진 받아 치료 중이다. 흡연력은 하루 반 갑 정도이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. 그 외특이 사항은 없었다.
- 4. 고찰: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과거에는 50 mG까지 방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자파 차단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10 mG 이하로 방출되고 있다. ACGIH 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일일 노출기준량은 5,000 mG이다.
- 5. 결론: 김OO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
 - ① 근무 중 극저주파에 노출되었으나 그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며.
 - ② 극저주파와 성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는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,

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